

나에게 펼쳐진 세상은 나의 마음작용



연기법으로 읽는 불교
목경찬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1만3천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此有故彼有 此生故彼生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저자는 “과연 이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일까?”라며 “연기법을 (올바로)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고 말한다. 책은 ‘연기법의 확장’으로, 연기법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보고 이해하기 위함이며, 그 확장된 연기법으로 불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연기법’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연기는 글자 그대로 ‘서로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 ‘다른 것과 관계를 맺어 일어나는 것’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풀이 아래 연기법은 ‘세상 만물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서로 관계하여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먹는 이한

톨의 쌀에도 모든 인연이 모여 있다.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두 상호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연기이다. 더 나아가 연기법을 사회 관계성으로 응용하여 설명하면, ‘내가 있으니 네가 있고,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 자연이 있으니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자연이 있다. 서로 관계하여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외부 세계의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성으로 연기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책은 이것을 연기 중의 ‘외연기(外緣起)’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마음 작용 간의 관계성으로 보는 것을 ‘내연기(內緣起)’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연기와 내연기에 대한 용어는 <요보생사경>, <도간경> 등에서 보이는데, 외연기는 씨앗, 삭, 줄기 등의 관계로 설명하고, 내연기는 무명에 의해 행이 일어나고 나아가 노사가 일어나는 관계, 즉 심이연기로

설명하고 있다고 책은 소개하고 있다. 즉 외연기는 마음 밖 대상과 대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산소와 수소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내연기는 마음작용 간의 관계를 말한다. 앞서 말한 무명에 의해 행이 일어나고 나아가 노사가 일어나는 관계, 또는 윤회 스님의 마음에 의해 해탈바가지 물이 달달한 물로 드러난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연기는 복잡한 내연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구절은 무명·행·식 등 심이연기법

확장된 연기법으로 불교교리 설명 연기, 내연기와 외연기로 구분 외연기는 내연기 설명 위한 것 연기법 핵심은 내연기(마음 작용)

의 12지(支)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과 저것, 나와 너 등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즉, 연기법은 세상 만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혹과 업으로 인해 마음 작용이 서로 관계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을 끊으라는 가르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연기법의 ‘확장’은 ‘내연기’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의 ‘연기’는 ‘서로 관계하여 일어난다’, ‘세상만물은 서로 관계하여 존재하며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였다. 하지만 책은 앞의 설명만으로는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외연기의 이해만으로 연기법을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과 저것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렇게 관계하여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나아가야 할 공부라는 것이다.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외연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외연기가 아니라 내연기라는 것이다. 즉 부처님께서 내연기를 설명하고자 외연기를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책은 심이연기, 삼법인, 오온, 심이처, 심팔계 등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지닌 참뜻을 연기법에 대한 바른 이해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달달의 파편으로 흩어지는 알알이의 교리가 아니라, 연기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마음의 체계적으로 연결되며, 전체를 꿰뚫는 통찰을 독자에게 전한다. 연기법은 ‘나에게 펼쳐진 세상은 나의 마음 작용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저자의 말은 이러한 기본 교설에 대한 이해가 초기불교뿐만 아니라 대승불교 또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불교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하루 7만 번도 가능한 ‘아미타’ 염송법

일체경계 본래일심

정목 지음 | 비룡소 소동 펴냄 | 1만2천원



‘연기·공·중도’는 세계의 실상을 관하는 철학적 사유이며, 객관적 깨달음이다. ‘일심·광명·화신’은 종교적 신념이며, 주관적 깨달음이다.

연기는 보편의 진리인 깨달음에 말로써 전할 수 있지만, 일심·광명·화신은 종교적 신념이요, 주관적 깨달음인 깨달음에 말로써 온전히 전하기 어렵다. 이것은 어렵지만, 진실로 믿고 행하는 자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다.

정화 큰스님 입적 이후 염불선(念佛禪)의 차세대 선지식으로 손꼽히는 저자 정목스님(양산 정토원 원장)은 원효 성사가 남긴 일심정토 염불수행을 삶과 수행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체득한 깨달음을 가감 없이 진솔하게 전하고 있다.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니, 자연과 생명의 청정한 광명을 찬탄합니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니, 모든 인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합니다.’

이 네 구절은 풀어 보이면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쥐어짜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교학이 방대한 이유는 이 네 구절을 깨닫기 위하여다. 알기는 쉬워도 실천하는 것은 세세생생을 하여도 모자란다. 철학과 종교가 서로 빛내고, 믿음의 대상과 깨달음의 경계를 동시에 보인다. 저자는 법부와 성인에 게 다 통하는 이러한 묘법을 독자들에게 생생히 전하고 있다.

염불수행은 ‘일체경계 본래일심’의 지혜와 성소자지를 진실로 믿고, 믿음으로 해탈하는 법이다. 염불은 믿음으로 해탈

하고, 진실한 성품이 드러난 세계인 ‘아미타불의 국토’를 생각하고 관찰하는 수행이다. 저자는 집중염불은 하루에 ‘아미타(무량광) 염송을 7만 번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심? 광명? 화신?’의 뜻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음에 포박 포박 새긴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아미타 아미타 아미타’라고 10번 정도 외운다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아미타(광명)’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을 상대하면서 ‘아미타’ 하면 2번, 열 사람을 상대하면서 ‘아미타’ 하면 10번, 동서남북에 보이는 것마다 관찰하며 ‘아미타’ 하면 100번은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와 같이 염불하면 하루 7만 번을 할 수 있다 등의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심정토 염불수행’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남녀노소, 무식과 박식, 소승과 대승, 나아가 보살까지 다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수행법이며, 단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공통분모는 ‘일체경계 본래일심’의 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근기에 따라 염불하는 방법은 달라도 모두 다 한 곳으로 흘러간다는게 저자의 해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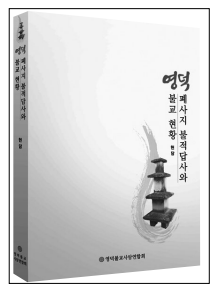
저자는 ‘일심정토를 지향하는 염불수행은 마침내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임을 깨달아 신앙의 대상이 우리를 삶의 현장에 있음을 자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행을 일으키게 합니다.”라며 ‘염불수행은 지성과 감성을 겸비해 삶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희망의 실천철학’이라고 말한다.

이어 저자는 “아침, 저녁, 시시때때로 날마다 염불합시다. ‘나우아미타불’ 육자영호든지, ‘아미타불’ 녀자든지, ‘아미타’ 석자든지, 명호의 뜻(무량광명)을 마음에 새기고 온 세상이 광명의 물결로 변할 때까지,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보일 때까지 정진합시다.”라고 책 속에서 불자들에게 당부한다. 김주일 기자

영덕 지역 사찰 65곳과 폐사지 30곳 정리

영덕 폐사지 불적답사와 불교현황

현단 지음 |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펴냄 | 3만원



영덕불교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이다. 최근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현단 스님은 영덕불교의 역사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내는 대작을

사를 회향했다. 위덕대 불교학과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덕경찰서 경승, 포항교도소 종교위원, 영덕파라미다 축구클럽 단장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현단 스님은 “출가 수행자로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불교 역사를 이어서 후대에 남겨야겠다는 사명감으로 틈틈이 자료를 정리하고 여러 번의 답사를 다니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집필 동기를 밝혔다.

이 책은 3 단계로 구성돼 있다. 우선 1부에 대한 역사 기록과 답사를 통해 폐사지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고 현재 상황을 기술해 놓았다. 2부에서는 영덕 지역의 사찰 65곳에 대한 기록이다. 창건 연대와 사찰 규모, 위치와 연락처, 종단 기록과 주지 스님의 활동 상황, 전각과 모시고 있는 불상 등을 사진과 함께 기록했다. 3부에서는 영덕불교사암연합회에서 봉행한 법회와 활동 모습 등을 사진과 글로 소상하게 기술했다.

현단 스님은 “처음에는 현재의 기록만 정리하려던 것이 폐사지의 기록까지 넣으면서 방대해졌지만 그만큼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이번 책 발간이 영덕불교 발전과 군민의 풍요로운 삶에 작은 보탬이 되고 이를 계기로 불교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 잘 보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기념회에는 4월 17일 오전 10시 영덕문화체육센터 내 영덕문화관에서 봉행한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 사리 신앙의 모든 것 총망라

한국의 사리 신앙 연구 -적멸보궁의 시원을 찾아서

자현·남무희·장미란·장성재·이원석·원혜영 공저
오대산 월정사 편찬 | 운주사 펴냄 | 1만8천원



신라 선덕여왕 재위 646년 왕명으로 당나라에 유학 갔던 자장 율사는 청량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 진신 사리 100과와 가사 1벌을 받아 귀국한다.

자장 스님을 기원으로 하는 적멸보궁의 역사와 사리 신앙을 인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리와 사리 신앙의 기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르는 사리 신앙 전래의 과정, 한국만의 각별한 사리 신앙을 오대산 월정사와 적멸보궁을 중심으로 탐구했다.

불교에서 사리는 붓다의 유골을 의미한다. 붓다 입멸 후 사리는 예배와 신앙의 대

상으로 여겨졌으며, 이것이 각 지역과 이웃나라로 분배되면서 사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적인 불교 신앙이 일어났다. 한국의 사리 신앙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사리 신앙이 다시 한국으로 전래되면서 비롯되었으며, 오대산 적멸보궁 신앙과 융합되어 한국만의 고유한 사리 신앙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불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에 대한 신앙이 매우 깊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적멸보궁 신앙과 사리 신앙에 대해 그 기원과 역사, 신앙의 특징과 의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책은 월정사에서 개최한 ‘오대산 적멸보궁과 사리 신앙의 재조명’이라는 불교학회 세미나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신라의 자장 스님에 의해 한국에 전래된 불사리와 이를 봉안한 적멸보궁의 기원과 역사적 과정, 그리고 한국 사리 신앙과 보궁 신앙의 성격과 의미, 나아가 중국과 인도의 사리 문화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고찰했다. 박재완 기자

책 속의 한 구절

▲절차탁마(切差琢磨)

정토원에 무성한 백일홍은 삼복더위 만큼이나 뜨거운 정열로 온몸의 에너지를 토해내며 붉게 타오릅니다. 자연도 그러하거늘 우리도 한 번쯤은 어떤 원력의 삶에 혼신을 다하는 시절이 있어야 인생의 참맛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신을 다할 일의 선택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언어 생멸문(眞如門 生滅門)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

입니다. 그 지혜 가운데 으뜸은 ‘일체경계 본래일심’의 지혜입니다. 그 일심에 진언어와 생멸문이 있습니다. 진언어는 마음의 본성이나 본래 맑은 물과 같고, 생멸문은 마음이 만든 현상이니 본래 맑은 물의 속성을 안고 흙탕물, 갖가지 염류수 등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무상(無相)임을 통찰하여, 이 도리에 의지해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보리심을 일으켜, 무원(無願)으로 남에게 이익이 되는 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시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보던 것을 원지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방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